

## 펩시코, 환경친화적인 경영활동에 초점 SKC 방문 통해 새로운 혁신 준비

세계 일류기업간의 만남은 그 시너지 효과가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 최대 식품음료기업인 펩시코와 화학, Film 분야의 국내 선두주자인 SKC(주).

이 두 기업의 만남이 지난 달 11일 SKC 수원공장에서 이뤄졌다.

펩시코는 세계 최대 식품음료기업으로 전세계적으로 16만8천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약 2백여개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 중이다. 주요 사업분야는 프리토레이(Frito-Lay) 스낵, 펩시콜라(Pepsi-Cola) 음료, 게토레이(Getorade) 스포츠 드링크, 트로피카나(Tropicana) 주스, 퀘이커(Quatke) 식품 등이 있다. 펩시코가 보유하고 있는 17개의 브랜드는 각각 소매 판매액만 10억불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펩시코는 '목적 있는 실적(Performance with Purpose)'이라는 가치 하에 지속적인 성장에 주력,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하면서 건전한 재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펩시코는 식품매장용 식품 및 음료에 대한 고객필요 충족, 수자원·에너지·포장재 사용 방안 혁신을 통한 환경피해 감소, 세계적인 인재 영입을 위한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 확립 등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펩시코는 세계적인 웰빙 바람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재



左 : SKC 조영배 부장  
中 : 펩시코 DANIEL W. SHAW, JR 부사장  
右 : SKC 양생환 본부장

빠르게 적응하며 건강음료와 식품 등의 분야로 사업다각화를 꾀하면서 급속도로 매출을 신장시키고 있다. 특히 감자칩, 옥수수칩 등의 스낵류를 주로 생산하는 프리토레이는 미국 시장의 60%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도 무려 40%나 된다. 세계 스낵 시장에서 프리토레이와 제2위 업체와의 차이가 7배에 이르는 것을 보면 이 회사가 구축한 아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알 수 있다.

거대한 세계 일류기업인 만큼 친환경적인 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기업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는 펩시코.

최근 들어 친환경 경영이 경영활동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들마다 환경투자를 늘리고 있다. 환경문제가 세계무역환경을 바꿔놓을 정도로 그 어느때 보다도 친환경경영이 필요한 시대로 변하고 있다.

게다가 소비자들도 친환경 경영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기 시작했고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다.

친환경 경영과 친환경제품을 개발해야 세계적인 초우량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

펩시코 DANIEL W. SHAW, JR 부사장(Flexible Packaging Films & Label팀)은 “펩시코는 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경영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스낵의 경우 동물성 기름에서 식물성 기름으로 바꾸는 등 환경적인 측면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DANIEL 부사장은 “패키지에 있어서는 리듀스(Reduce), 리유즈(Reuse)가 가능한 포장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펩시코의 친환경 활동 중 하나인 포장재 사용 방안 혁신을 위해 SKC 방문을 계획한 DANIEL 부사장 외에 프리토레이 임원직들은 그래서 이번 미팅에 더욱 기대를 걸고 있다.

폴리에스터 필름 시장에서 전세계 4위 생산국으로 5번째 독자적 기술을 보유, 1백5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SKC는 1977년,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생산체제를 구축한 이래 이미 ‘스카이롤’ 이라는 고유 브랜드로 세계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에 출시한 친환경 생분해성 이축연식필름인 Skywel<sup>®</sup>은 30년간의 PET 필름으로 축적된 노후유를 밑거름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기계적 강도와 산도 및 광학적 성질이 우수하여 수려한 인쇄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제품은 세계적으로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화석자원의 고갈, 탄소배출규제, 원유가 급등 등으로 인해 친환경 산업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필름 분야에서 가장 성장성이 유망하다.

패키지 필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SKC와의 접촉을 통해 펩시코는 새로운 혁신을 이룰 준비를 하고 있다.

DANIEL 부사장은 “SKC는 펩시코가 원하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능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라며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펩시코는 SKC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간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대목이다. ☐

이한얼 기자

## 용기 고정 마개 개발, 업계 주목 마개 특허 획득, 독점 사용권 및 라이선스 계약 추진



백영자  
베스트케미칼 대표

용기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사용하거나 음료용으로 취음하기 위해서는 마개를 따야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동안 용기를 막고 있는 마개는 대부분이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 사용 후 남은 제품을 보관하기 위해 다시 닫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마개를 분실하거나 혹은 떨어뜨려 음료일 경우 위생상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런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마개가 몸체와 붙어 있는 마개를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는 백영자 베스트케미칼 대표를 만났다.

대한페인트 총판을 운영하며 페인트 업계의 판매 1인자였던 그녀가 마개에 관심을 갖고 개발에 나선 것은 특별한 계기에 있다.

남편과 이별한 뒤 빛만 남게된 백 사장은 오빠의 사고 보상금 1,000만원으로 페인트 유통업을 시작하였고 그 분야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나 5년전 그 오빠가 가슴에 들어와 마개를 줄테니 유통업을 그만두고 마개사업을 하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하도 이상해 다음날 오빠 무덤에 가보니 흰나비가 날고 있었고 마개 특허를 내던날 나비가 없어졌다고 한다. 백 사장은 이것을 오빠가 환생한 것이라 믿으며 평생 마개 사업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생전에 오빠가 아이들을 좋아한 것에 착안, 사업해서 번 돈으로 고아들을 위한 사업을 할 계획이라 밝혔다. 전국에 고아원을 설립하고 잘 운영하여 오빠에 대한 보답으로 흔적을 남겨 주겠다는 것이다.

오빠에 대한 일화는 또 있다. 오빠 신이 들어오면 가슴 중앙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며 자존심을 굽히지 말라고 했단다. 현재 보유한 특허 모두 오빠 신이 들어온 한달간에 착안해 연구한 결

과라 한다.

회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경제적인 도움을 줘 위기를 넘기기도 했는데 백 사장은 이 모두가 계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믿고 있다. 회사명을 BEST라 지은 것도 마음을 통한 최고의 고아원을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떠오르는 해를 떠안고 가는 것을 표현했다고 한다.

“기존의 업체들은 지는 해입니다. 베스트야 말로 떠오르는 해 입니다”라고 말한 백 사장은 “작은 나라인 한반도는 4계절이 뚜렷한 금수강산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바이어에게 설명한다고 말하고 베스트는 세계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음료용기의 마개 시장은 100억개 정도 되는데 백 사장이 특허낸 마개의 적용 가능 수량은 70억개 정도로 500억원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이다.

백 사장이 특허낸 스크류 돌리기식, 슬라이더 링 마개는 마개 오픈 후 용기에 고정돼 음용시 지장을 주지 않고 마개분실과 오염 방지가 가능하다. 특히 마개는 음료, 생수, 주류, 장류, 화장품, 의약품 등 내용물이나 PET,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재, 유리,



▲ 베스트케미칼이 특허를 획득한 마개

종이 등 용기 재질과 크기, 모양,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제품에 사용 가능하다. 자석 일체형 마개는 속 마개와 겉마개를 2번 열고 닫는 불편을 속마개와 겉마개를 일체화 시켰으며, 용기에 부착가능하게 되어 마개분실 및 오염방지, 용기 사용공장의 생산성을 60% 이상 향상시키고 기존 속마개가 통안으로 들어가는 불량을 방지하여 생산비용 절감과 완제품 불량 방지효과를 갖고 있다.

백 사장은 특허 마개를 통해 국내 음료 및 생수사와 독점 사용권 및 라이선스를 계약 추진중이며, 마개회사와도 계약을 진행 중이다.

해외의 음료수 회사 및 마개회사와도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고 외자 유치도 병행하고 있다.

베스트케미칼 직원들은 가슴에孝를 행하는 마음이란 문구를 붙이고 있다. 백 사장이 회사를 끌어가는 모토가孝이기도 하다.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이孝이기에 효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되고 효의 시작인 어린이를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지론에서 나온 것이다. 백 사장은 하늘에 약속했다고 한다. 고아들을 평생 돌보고 사람답게 살겠다는 것이다.

자식에게도 재산보다는 정신을 물려주고 싶다고 한다.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불우 학생에게 남모르게 장학금을 주었고 아들에게도 이를 모르게 했다고 한다. 나중에 아들이 눈치를 챘지만 모르는체 해주어 고맙다고 한다. 백 사장은 가난하고 꼴찌인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외딴부도 밑에서 자라는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 부족한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채워주어 그들이 훌륭한 사회 일원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란단다.

남모르게 보통 상식과는 다른 측면에서 봉사와 사업을 하고 있는 백 사장의 사업이 번창하여 음지에 있는 고아들에게 많은 날개를 달아주었으면 한다. [ko]